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안기동)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mailto:sa3119@nate.com)



강 론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중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  
는 게 힘들어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오디(GOD)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인데, 가사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  
나 /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 촛불 하나 켜두고 어둠이 달아나  
나 …… 하지만 그렇지 않아 / 작은 촛불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  
아 /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  
에 /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

이러한 “촛불하나”라는 노래를 듣고 있자면 우리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다……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너희의 빛이 사람  
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을 지닌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인 힘겨루기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요? 그 빛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어둠 앞에서 우리의 빛이 너무나도 나약해 보여 그 빛을 숨기려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의 빛이 보이면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삼켜 버릴까봐 무서워 우리의 빛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세상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착하게 살아서는 바보밖에 되지 못한다고’, ‘너희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고’, ‘너희가 들고 있는 그 빛을 버리기만 하면 너희도 이 거대한 어둠 속으로 들어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의 존재로 내려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둠과 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유혹을 당당히 이겨내고,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써 승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빛이 나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빛이 한 순간 불어오는 세상의 풍파에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 빛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빛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때, 또 다른 빛이 우리 곁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빛들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서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빛들이 점점 번져 결국은 이겨낼 수 없어 보이던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세상의 어둠이 주는 유혹과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지닌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거 하도록 합시다.

목성동 본당 보좌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부유함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다짐하며 정성되이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421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 본기도

†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이사야서 58장 7절-10절

**안 내 :** 가난한 이와 헐벗은 이를 돌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묵 상 :**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은 헐벗고 갈 곳 없이 떠도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이들을 돌보는 이들은 주님 영광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제2독서 : 코린토 1서 2장 1절-5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선포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묵 상 :** 자신의 학식과 언변으로는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낼 수 없고 오직 하느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알렐루야.

---

**복 음 : 마태오 5장 13절-16절**

**강 론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1-2쪽)

**예물준비성가 :** 332번 ‘봉헌’

**영성체성가 :** 504번 ‘우리와 함께 주여’

**영성체 후 묵상**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아들.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듣는 자녀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고

소금 한꼬집이 세상 곳곳에 뿌려지면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

나의 작은 수고와 자선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78번 ‘주님께 영광을 드리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7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 알 림

### ■ 2017년도 대신학교 입학생

- 유환서 루도비꼬(가은 본당)
- ※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 사제회의

- 일시 : 2월 6일(월) - 7일(화)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 ■ 초등부 교리교사학교

- 일시 : 2월 11일(토) 13:30 - 14일(주일) 15:3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안동교구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신임, 재임)
- 회비 : 45,000원
- 준비물 : 성경, 미사준비, 세면도구, 필기구
- 신청 : 2월 6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 지구 구역·반장연수

- 안동 . 의성지구 : 2월 12일(주일)
  - 교구청 1층 강당(2월 7일까지 신청)
- 문경지구 : 2월 19일(주일)
  - 점촌동 성당(2월 14일까지 신청)
- 상주지구 : 2월 26일(주일)
  - 계림동 성당(2월 21일까지 신청)
- 북부지구 : 3월 5일(주일)
  - 휴천동 성당(2월 28일까지 신청)
- 동해지구 : 3월 12일(주일)
  - 영 해 성당(3월 7일까지 신청)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 안동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발대식 및 연수

- 일시 : 2월 14일(화) 10:00 - 16: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1만원
- 대상 : 본당 여성단체 회장단(성모회장단, 자모회장단 등)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신청 : 2월 9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 안동교구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계획 : 1년에 4회 실시 예정)
- 일시 : 2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준비물 : 미사준비
- 신청 : 2월 15일(수)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 2017년 예비신학생모임 개강미사

- 일시 : 2월 18일(토) 14: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2017년도에 예비신학생으로 등록한 학생 및 부모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 교구 성령묵상회

- 일시 : 2월 24일(금) 14:00 - 26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회비 : 10만원
- 신청 : 2월 19일(주일)까지 성령봉사회(010-8447-0111)

### ■ 2017년 아시아 청년대회(AYD) 참가자 모집

- 일시 : 7월 28일 - 8월 10일
- 장소 : 인도네시아
- 참가자격 :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17-30세 (실제나이) 청년
  - 17세-18세(고1-고2) 3명 선정,
  - 20세-30세 2명 선정
- 참가비 : 150만원 예상
- 참가인원 : 5명(신청자에 한하여 교구에서 면접 후 선발)
- 신청 : 2월 10일(금)까지
- 문의 : 안동교구 사목국(858-3114~5)
- ※ 교구 홈페이지([www.acatholic.or.kr](http://www.acatholic.or.kr))에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일시 : 2월 17일(금)15:00-18일(토)13:00
- 피정비 : 1인 6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4장

#### 혼인의 사랑

89.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혼인과 가정에 관한 복음을 표현하는 데에 불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랑과 가정의 사랑의 성장을 촉진하고 강화하며 증진하지 않으면서 신의와 상호 증여의 길을 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인성사의 은총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코린 13.2-3).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자주 사용되면서도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우리 일상의 사랑

90. 바오로 성인이 사랑에 대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글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특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코린 13,4-7)

일상생활에서 부부는 서로, 그리고 그들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바오로 성인의 이 글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91. 처음에 나오는 표현은 ‘마크로티메이’(makrothyméi)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라고 번역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7절 끝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역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분노에 더디시다.”(탈출 34,6; 민수 14,18)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사람의 품성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품성을 계약의 하느님에게서 발견하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의 삶 안에서도 당신을 닮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오로 성인의 글을 지혜서(11,23; 12,2.15-18 참조)에 비추어 읽어 보아야 합니다. 지혜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려 분노에 더디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에 드러나는 그분의 권능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느님의 ‘인내’는 당신의 진정한 권능의 표징입니다.

92.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이가 우리를 계속 학대해도 놔두거나, 육체적 폭력을 용인하거나, 다른 이가 우리를 이용해도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적 관계나 완벽한 사람을 기대할 때에, 또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되기를 기대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인내심을 잃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화를 내며 반응한 것에 대하여 늘 변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합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에페 4,31).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내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방해하거나, 나의 계획을 망치거나,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나를 괴롭히거나, 그들이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깊은 연민의 측면이 있으며, 이는 다른 이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그를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 졸업의 의미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매년 2월은 졸업시즌이다. 졸업은 정해진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에서 이미 축제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겁다. 지난해 우연히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초대를 받았다. 오랜만에 본 졸업식은 흥미로웠다. 우리 때와는 많은 것이 바뀌었고 분위기도 전혀 달랐다. 엄숙함이나 이별의 슬픔 같은 것은 느낄 수 없었다. 마치 학교별로 특색 있는 학예회를 보는 것 같았다. 함께 부르던, 귀에 익은 졸업식 노래는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송사와 답사도 없었다. 그 대신 재학생들은 합창이나 율동으로, 졸업생들은 노래나 퍼포먼스로 화답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통제와 자율의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졸업생들은 부모와 학교로부터의 해방을 즐기는 듯 유쾌했고 떠들썩했다. 너무 자유분방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만이 넘쳐날 뿐 떠난다는 아쉬움은 보이지 않았다. 12년 동안의 정규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흥분분함, 이제 성년이 된다는 기쁨이 이별의 아쉬움보다 훨씬 큰 것 같았다.

중학교 졸업식은 아기자기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같이 노래를 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졸업을 축하하고 아쉬움을 나눴다. 졸업식의 본 행사보다 오히려 그런 축하와 아쉬움의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여 보기에 좋았다. 고등학생들 보다는 훨씬 더 단정하고 예의바르며 통제에 잘 따르는 듯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식은 손님이 제일 많은 즐거운 축제였다. 미숙한 율동과 합창이기는 해도 그들은 진지했다. 졸업생들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마치 이제 갓 날개 짓을 배운 새 처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결기가 엿보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물을 흘렸다. 그런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내 가슴까지 따뜻해졌다.

세 번의 졸업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초등학교는 가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라는 과정이고, 중학교 3년은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자아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고등학교 3년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자립심과 호연지기를 배운다. 학생들은 이렇게 세 번의 졸업식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학년이 올라가고 배움이 쌓일수록 더 모범적이고, 더 점잖아지며, 더 지성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면에서 고등학생들의 졸업식은 많이 아쉬웠다. 좀 더 진지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졸업식의 연속이다.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칭은 다르지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라는 졸업식을 거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

내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은 병자성사다. 그것은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하느님 나라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녀들의 대학입시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썼으면서 정작 내게 중요한 하느님 나라의 입학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한번쯤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